

칸 영화제 “가을 개최 희망”

티에리 집행위원장 “베니스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협업도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연기한 칸 국제영화제가 가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티에리 프리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칸영화제의 7월 개최가 어렵고, 영화와 영화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가을개최도 칸영화제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협업 계획도 전했다. “다른 방식으로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영화제가 취소될 경우 무언가를 함께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당초 칸 국제영화제는 5월 12~23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영화제들이 줄줄이 일정을 연기했으나, 칸영화제는 행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

믹 선언과 함께 프랑스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최를 연기했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영화제를 위해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달 14일 칸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당초 예정됐던 6월 말, 7월 초 개최 방안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다시 일정을 미뤘다. 코로나19 확산세에 프랑스 정부가 영화제나 대형 페스티벌 등이 7월 중순까지 열릴 수 없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사재기 시도한 적 없어… 공개 사과를”

불빨간사춘기 측, ‘음원 사재기 의혹’ 주장 김근태 국민의당 후보에

안지영의 1인 밴드 ‘불빨간사춘기’가 자신에 대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주장한 김근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소속사 쇼파르뮤직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됨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쇼파르는 김 후보가 음원차트 조작을 시도했다며 언급한 ‘크레이티브’, ‘리온티 홀딩스’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 없는 곳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크레이티브 모 대표는 어떤 가수의 사재기 혹은 차트 조작을 의뢰받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쇼파르는 김 후보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A 가수의 음원이 같이 스트리밍됐음에도 ‘A 가수는 조작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페이크용 스트리밍으로 이용된 거고 불빨간사춘기는 순위 조작을 위한 스트리밍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김 후보께서 직접 판단한 것이냐”는 물음이다.

또 2016년 4월 데뷔한 불빨간사춘기는 그해에 ‘우주를 줄게’, ‘나만 안 되는 연애’ 등 여러 곡을 상위권에 안착시키며 이미 ‘음원 강자’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크레이티브는 2017년 3월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에 우리가 돈을 들어가며 순위 조작을 의뢰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순위 조작 스트리밍 증거가 ‘드라마 OST’ 인지 따져볼으며 “만약 그렇다면 저희 불

빨간사춘기와 쇼파르뮤직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쇼파르 관계자는 “김 후보가 실명을 언급함으로써 불빨간사춘기와 저희는 중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고 있다. 당사가 음원 조작을 시도했다는 근거를 명백히 공개해 달라”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8일 “언더마케팅 기업 크레이티브가 불법으로 취득한 일반인의 ID를 악용해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 및 증거가 있다”면서 “크레이티브와 더불어 파생된 리온티 홀딩스가 언더 마케팅을 시행했다고 확인된 가수는 고승형, 공원소녀, 배드키즈, 불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이라고 주장했다.

그를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후보를 이미 고소했다. 다른 팀들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가요계 상당수도 김 후보가 확인 절차와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실명까지 거명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철 반박 이슈’로 활용했다는 의심도 더해지고 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김 후보의 음원과 관련된 사재기 및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 및 증거를 밝힌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치적 선전”이라며 “그동안 성실히 쌓아왔던 가수 및 소속사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뉴시스

총선일, 극장가 ‘활기’ 전체 관객 수 4만여명

이시언 주연 ‘서치 아웃’
개봉과 동시에 1위 차지



영화 ‘서치 아웃’의 한 장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극장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극장을 찾은 전체 관객 수는 4만5868명이다. 이날 들어 최고 기록이다.

한국영화 ‘서치 아웃’이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차지했다. 전국 388개 상영관에서 839회 상영해 5168명을 모았다. 누적 관객은 5168명이다.

이시언·김성철·허가운 주연의 추적 스릴러다. 의문의 메시지때문에 고시원 자살 사건의 조작을 감지한 ‘성민’과 ‘준혁’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SNS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영화 ‘구회말’(2010) ‘디렉터스컷’(2018) 등을 연출한 박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위는 ‘건즈 이퀼보’(감독 제이슨 레이 하우덴)다. 162개관에서 469회 상영해 5048명이 봤다. 누적관객 6164명.

‘해리 포터’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주연을 맡았다. 파리 한 마리 못 죽이지만 키보드만 잡으면 터미네이터가 되는 ‘찌질남’ 마일즈(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진짜 목숨을 건 게임 ‘스키즈’에 강제 로그인되면서 양손에 총을 박제한 채 추적을 받는 이야기다. 사마라 위빙, 나타샤 류 보르디초, 마크 로울리 등이 함께 했다.

‘1917’이 3위다. 276개관에서 497회 상영해 4854명을 동원했다. 누적관객 76만9138명을 기록했다.

영화 ‘007 스카이폴’(2012) ‘007 스펙터’(2015) 등을 연출한 샘 멘데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조지 맥케이) ‘블레이크’(딘 찰스 채프먼)가 하루동안 겪는 사투를 그렸다. 두 병사는 독일군의 함정에 빠진 아군 1600명을 구하기 위해 적진을 뚫고 전쟁터 한복판을 달려간다. 조지 맥케이, 딘 찰스 채프먼, 폴린 퍼스 등이 주연했다. /뉴시스

에이프릴, 처음부터 다시... 새 앨범 ‘다 카포’ 22일 발매

변신 콘셉트는 추후 공개



그들 ‘에이프릴’이 변신을 꾀한다. 16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따르면 에이프릴은 오는 22일 발매하는 새 미니앨범 ‘다 카포(Da Capo)’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변신 콘셉트는 추후 공개한다.

타이틀곡은 ‘라라라라라(LALALILALA)’다. mnc와 강명신이 작사와 작곡, 편곡을 맡아 에이프릴의 새로운 세계를 그려냈다는 설명이다.

DSP미디어는 “특히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 ‘다 카포(Da Capo)’를 앨범 명으로 정한 만큼,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앨범에는 ‘웁스 아임 소리(Oops I'm Sorry)’를 비롯 ‘인형’, ‘1.2.3.4’, ‘너.야’ 등 에이프릴의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곡들이 실린다. 오프라인에 발매되는 CD에만 실리는 ‘시간차’도 수록한다.

2015년 미니앨범 ‘드림(Dreaming)’으로 데뷔한 에이프릴은 그간 청순가련한 콘셉트를 선보여왔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